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제4차 시민건강분과 회의록(4월)

<b>일 시</b>	2019. 04. 26.(금) 10:00 ~ 13:00	<b>기록</b>	임복희	<b>확인</b>	우태옥, 송명은	
<b>장 소</b>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실					
<b>참석자</b>	<b>총 19명중 10명 참석 (참여율 52.6% - 관 1/6, 민 9/13)</b>					
	우태옥	장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	변남순	수원YWCA 책임간사	×
	송명은	사)케이브이엔(한국방문간호사회)대표	○	서지유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
	김영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공영화	장안구보건소 보건기획팀장	×
	김경아	팔달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	박연옥	아노가녀싱홀 원장	○
	김민정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장명희	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장	×	이태희	영통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
	김유라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윤희숙	권선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	×
	김혜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대리	×	조윤희	서호재가노인복지센터 과장	○
	박미애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좌수일	한 살림 수원생협	○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b>김혜경</b>	<b>장안구보건소장 (자문)</b>	×	<b>임복희</b>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담당)	○
<b>회의주제 및 안건</b>	<p><b>1. 교육 : 푸드플랜의 이해</b></p> <p>- 강사 : 좌수일 / 한 살림수원생협 사무국장</p> <p><b>2. 회의</b></p> <p>1) 인사 및 정책 공유</p> <p>2) 시민건강분과 공동사업 및 우수분과 사업비 논의</p> <p>3) 차기회의일정</p>					
<b>회의결과</b>	<p><b>1. 교육 : 푸드플랜 먹거리로 바꾸는 지역사회</b></p> <p><b>1) 다시, 밥</b></p> <p>- 치킨 한조각이 세계: 농장-&gt; 도계장-&gt; 유통업체-&gt; 프랜차이즈본사-&gt;프랜차이즈 가맹점-&gt;소비자</p> <p>- 노동의 문제(농장주의 삶과 이주노동자), 수직적 도계화, GMO 옥수수과 콩으로 길러진 닭, 대기업중심</p> <p>- 학교급식의 다이어그램: 친환경무상급식-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먹거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구조임. - 대안적 새로운 경제체계 고민</p> <p>‘부엌이 세계다’</p> <p><b>2) 우리가 경험한 먹거리의 세계</b></p> <p>- 로컬푸드: 수원시로컬푸드 직매장2개 운영중. 로컬푸드직매장이 많아질 수록 로컬푸드는 잘되고있다고 봐야하는가? 우리의 삶은 달라졌는가? 로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친환경농산물과 로컬</p> <p>- 살충제 계란 파동: 농장의 규모화 문제,</p>					

- 한살림 계란 디디티 검출: 토양의 잔류한 디디티오염의 문제, 더 꼼꼼한 관리체계는 어디까지인가?
- 우리가 경험한 안전성의 세계: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한가?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 제3자 인증체계-표준화와 규제 소비자의 신뢰향상으로 유기농 확대, 인증 중심 유기농의 산업적 유기농, 투입재 특성으로 대체, 유기농은 생태적 조절이 아닌 외부 투입재에 의해 대체(자가비용이 아니라 외부표준화된 비료사용). 유기농은 유기물, 순환성과 다양성, 지역순환형 농업,
-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 고민, 로컬푸드는 글로벌푸드의 반대 개념. 소농 가족농, 다품종농업, 가까운 거리, 농민소비자 주도. 로컬푸드는 사회적 거리-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어때야 하는가?

### 3) 세계로서의 먹거리

- 푸드플랜: 농축식품부 정의- 지역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
- 지역마다 푸드플랜의 모습은 달라야 함
-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푸드플랜) : 상생, 보장, 건강, 안전, 협치- 협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 먹거리 보장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까, 공공급식의 강화와 조달체계의 혁신,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보장을 넘어 건강과 안전으로: (공공급식-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군대...) 수원 대부분 겸업농, 임대농. 농업에 대해 인식 접근성이 높음. 텃밭농작물 조달체계 내 진입(취약계층 텃밭운영- 조달- 가공공장: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조직, 학생 자원봉사활동)
- 일본 어린이식당: 어린이는 무조건 무료, 어른은 천원. 식재료는 생협이 유통기간 근접 재료, 지역 농산물, 조리는 자원봉사 어머니들, 공간은 지방정부 지원 또는 공공공간, 사회적 계층적 경계가 없음(누구라도 무료로 먹을 수 있으니까), 배제와 분리의 공간이 아니라 통합의 공간으로 운영. 우리나라 편의점 도시락, 김밥을 사먹고 있음.
- 수원의 먹거리지형을 고민하여 조달체계를 잘 만들면, 가능.
- 푸드플랜 생명산업과 식생활개센터에서 담당. 전담팀을 통한 통합적 접근 필요. 거버넌스체계

### 4) 먹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나의 먹거리, 수원시의 먹거리는 관계의 먹거리로 고민해야 함.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 수원시 푸드플랜 시장 공약사항. 농식품부 지원받음. 수원시 먹거리기본조례안 고민 필요. 하반기 푸드플랜 수립 용역 준비중. 실제 먹거리 실태조사 및 현장의 소리를 담기 위한 기간 재 설정 필요
- 푸드플랜의 비전, 가치는 우리의 의견을 담아 수립되어야 함. 계획 수립의 설계단계에서의 개입과 시민참여.

### 5) 소감나눔

- 먹거리에 철학이 담겨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 푸드플랜에 대해 관심 갖고 조례 제정에

	<p>대해서도 고민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와 건강, 먹거리를 통해 건강 개선. 제안된 조달체계 우리가 늘 꿈꾸지만 가능할지 고민</li> <li>- 농약, 원자력 오염물이 축적된 먹거리. 함께 나누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li> <li>- 이행되기까지 기다림이 필요. 효원쌀을 친환경쌀로 만들때. 서울시의 경우, 학교급식 조달체계를 지자체별로 1대1 매칭함. 쌀은 완주, ... 상생의 가치가 푸드플랜에 들어가 있음.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됨</li> </ul> <p><b>2. 회의</b></p> <p><b>1) 시민건강분과 공동사업 및 우수분과 사업비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케어 여러 분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 논의 중. 커뮤니티케어 세미나를 하반기에 분과간 연계를 통해 공동 주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5월 10일 커뮤니티케어 교육후 한번 더 구체적 논의 필요</li> <li>- 우수분과 사업비로 교육, 세미나 개최</li> </ul> <p><b>2) 차기회의 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9. 5. 10.(금) 15:00</li> <li>- 내용 : 커뮤니티케어 교육, 회의</li> </ul>
--	---